

# 서평전문지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 분석 연구

Reviews of Picture Books : A Content Analysis

심향분(Hyang Boon Shim)<sup>1)</sup>

현은자(Eun Ja Hyun)<sup>2)</sup>

## ABSTRACT

Many picture books are published every year. Book review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knowledge about newly published book. This study analyzed data the coverage and content of reviews in journals with a view to helping librarians and parents become more aware of content and coverage of reviews for picture books. Variations of bibliographic and ordering information appeared among all journals. Most reviews typically included a plot summary and a general statement about the illustrations. Overall, journals provided more comments on literary elements than artistic elements. However, reviews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of reviewers. Physical description of the books appeared in 8.81% of the sample.

**Key Words** : 그림책(picture book), 서평(review), 기술적 서평(descriptive review), 비평적 서평(critical review), 서지학적 정보(bibliographic information), 저널(journal).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3년 한 해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집계된 신간 도서의 발행종수는 총 35,371종(만화 포함)에 달한다. 이 중 아동 도서는 5,219종으로 전체 발행 부수의 14.1%를 차지하

고 있다. 1990년대 이르러 아동 도서의 출판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출판 연합에 나타난 최근 10년간 발행 추이에 따르면 아동도서의 출판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시장 점유율 2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출판 시장의 활성화로 많은 아동도서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는 많은 부모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출판된 모든

<sup>1)</sup> 그림책 교실 소장

<sup>2)</sup>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 Ja Hyu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E-mail : Hyunej@chol.com

책들이 읽을 만한 가치있는 좋은 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책을 읽어 주어야 하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결정하기 어려워졌다. 양적으로 팽배해져 가는 출판 상황 속에서 좋은 책을 골라내는 일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부모나 교사가 좋은 책을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2003)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도서정보원으로 신문이나 잡지에서의 책 소개를 참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문학도서의 경우 12.9%, 문학 이외의 도서는 9.8%로 나타났다. 또한 김 수영(1995)은 도서관마다 어린이 도서 선정기준이 없어 수서담당자들이 도서를 선정하는데 서평지 등 선택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도 성인들이 책을 선정하고 구입하는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권장도서 목록에는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였는지,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서목록만을 가지고는 다양한 독자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기 쉽지 않다.

이 때 정기간행물에 실린 서평들은 독자들에게 도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서평을 통해 독자들은 정보의 요구,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책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게 된다. Wyatt와 Badger(1984)는 서평이 독자들이 매체를 직접 접하기 전에 평가하고 흥미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Bishop 과 Van Orden(1998 : 146)은 서평(book review)이란 “사서들이 책을 수집하고 책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서평이란 사서나 많은 성인들이 책을 선정하고 구입하는 잣대로서 기능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서평은 독자들이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그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교사와 사서, 그리고 많은 부모들에게 좋은 책에 대한 서평은 도서의 선택과 결정에 주된 정보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평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아동 도서 서평에 대한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저널에 실린 아동 도서, 특히 그림책에 대한 현 서평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서와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아동 도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그림책 서평의 현황은 어떠한가?

1-1 서평지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 도서 중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1-2 서평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림책 중 픽션과 년픽션의 비율은 어떠한가?

1-3 서평지에 실린 국내 창작도서와 번역도서의 비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림책 서평의 내용은 어떠한가?

2-1 서지학적 정보는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가?

2-2 문학적 요소는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가?

- 2-3 예술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가?  
 2-4 서평자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가?  
 2-5 외형(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가?

### 3. 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픽션(fiction) : 꾸며진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넌픽션(nonfiction) : 동시, 신화, 전기, 정보책 등 독자에게 무언가 알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서

기술적 서평(descriptive review) : 책의 몇몇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서 인물, 구성, 주제 혹은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비평적 서평(critical review)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석적인 진술로서 작품에 대한 평가, 비교, 분야에의 공헌에 대한 언급 등을 포함하는 해석적인 진술

서지학적 정보 : 책제목,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과 같은 책에 관한 정보

문학적 요소 : 글에 대한 구성(줄거리), 주제, 인물, 언어, 배경, 사건 등과 같은 요소

예술적인 요소 : 그림에 대한 매체, 색, 선, 구도, 스타일과 같은 요소

## II. 선행연구

### 1. 서평의 의의와 목적

서평은 협의적으로는 도서 비평, 광의적으로

는 서지비평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도서관 정보학 사전」은 서평이란 “어떤 작품에 대한 비평적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arrod's Librarian's Glossary」에서는 서평이란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책에 대한 조사와 비평적 논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는 정기간행 출판물이라고 서평이 실리는 매체와 더불어 서평의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함께 하고 있다.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사전」에서도 서평이란 “일반적으로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에 발표된 저작물의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정보가 꼭 인쇄매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과 같은 최첨단 전자매체에도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책에 대한 서평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이천효(1996)는 서평이란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도서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가치를 비판하는 일련의 행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서평이란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천효는 서평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이며 독자와 도서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평은 독자들에게 도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고 그 정보에의 접근을 도와주는 중요한 이차 자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서평의 기본적 기능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제시하는 독서지도 기능과 함께 수많은 출판물 중 우수 도서를 선별해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불량 도서 출판을 억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평

은 도서에 대한 평가, 추천 등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도서 발행과 판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경록, 1997).

공정하고 권위있는 서평이 되기 위해서는 서평 대상문헌의 객관성있는 선정보다 적절한 서평자의 선정이 우선된다. Sutherland(1978)는 서평자란 아동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소지하고, 문장력, 아동들의 독서흥미와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소지하고, 아동과 아동심리학에 대한 이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자세, 도서의 강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보고하고 도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도서란 그 시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서평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문학적인 질을 고려하는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도서가 품고 있는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평이란 어느 이차자료보다 작성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성격의 자료이다. 그래서 Heppermann(2002)는 서평자가 대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서평자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평자는 글을 평가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서평은 지면상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평자의 모든 관점을 기술할 수는 없다. 주어진 짧은 글 속에는 서평자가 지니고 있는 사실들 뿐 아니라 이야기의 간단한 요약(bibliographical citations)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Veeder(1992)는 서평자들에게 주어진 지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독자들을 위해 대상 도서의 좋은 측면을 언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도서의 단점을 언급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여서

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코드를 해석하지 못하며,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독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평가 Sutherland(1978) 역시 “서평에서 부정적인 언급이 독자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매우 중대하게 생각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Craver(1984)는 서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반응자의 99%가 필요하다면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가 서평자의 중요한 견해라고 응답한 서평자들은 41%에 그쳤다. 도서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서평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평자가 객관성을 잃지 않고 쓴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서평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도서관 정보관리편람」을 보면 서평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작사항에 관한 것 둘째, 내용에 관한 것 셋째, 물리적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서지, 색인 등이 적절한가 넷째, 독자와의 관계 등 저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Bishop과 Wilson(1999)은 아동도서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 독자의 정의, 톤/스타일/관점에 대한 정보,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유사 작품과의 비교, 글에 대한 그림의 적절성, 개인적인 견해, 장점/단점, 작품, 간결함, 문학적 질에 대한 판단 등 10가지 준거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비평이 도서에 대하여 비평자의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찰이라고 한다면, 서평은 도서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가치 등에 관해 서평자가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평은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많은 사서들과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도서를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고, 독자들에게는 도서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는 유의미한 효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적절한 서평자를 선정하고 제한된 지면속에서도 서평의 내용준거를 고려하여 도서의 다양한 측면을 언급하여야 한다.

## 2. 서평연구

수많은 도서들 속에서 어떠한 책을 골라 우리의 아이에게 보여줄 것인가는 부모, 사서, 그리고 교사들에게 중대한 숙제이다. 그래서 김규연(1999)은 아동 도서의 소비방식을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는 엄청난 출판 물량에 비해 제대로 된 정보책자가 부족한 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은 아동도서의 구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았다. 아동 도서에 대한 구매정보의 통로는 이웃이나 친척의 소개가 가장 많은 49.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잡지, 신문, TV, 라디오와 같은 언론을 통하는 것이 19.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책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1순위가 책의 내용이 87.4%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 2순위로는 책의 편집이 32.1%를, 그리고 3순위는 책 값으로 28.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평자들이 서평에서 도서의 정보를 제시하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2001)는 서평전문지 <서평문화>에 수록된 주제별 서평에서 아동도서의 서평 편수가 가장 적다는 결과를 발표한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수록된 총 990편의 서평 중 아동도서의 서평은 44편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김선

남(2003)은 1년동안 신문의 북섹션 지면에 게재된 2,680건의 서평 기사를 분석하였다. 결과 서평의 분야가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치중되어 문학/아동분야에 대한 비중이 작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서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현대 도서관학 총서위원회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평대상도서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하여 서평자의 비판 없이 저자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기술적 서평(descriptive review)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평자가 올곧은 자신의 학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비평대상 도서의 내용과 형태 등에 나타나는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없이 비평하는 것을 비평적 서평(critical review)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천효(1996)는 이 두가지 요소에 해석적 서평(interpretative review)을 첨부하면서, 이것은 서평자가 비평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의 정확한 의미파악과 언외의 의미파악 및 어려운 주제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Kennemer는 기술적 서평(descriptive review), 분석적 서평(analytical review), 사회적 서평(sociological review) 세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Horning, 1997, 재인용). 그리고 Bishop과 Van Orden(1998)은 서평의 진술방식을 책의 몇몇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하는 '기술적인 설명',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석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적인 설명', 그리고 책의 대중성에 대한 예측이나 책의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과 같은 비문학적인 고려사항에 기초한 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사회학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Bishop과 Van Orden(1998)은 사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널들을 대상으로 서평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든 저널들의 서평은 공통적으로 제목, 저자 그리고 ISBN과 같은 주문에 필요한 요소들과 서지학적 정보들을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널들이 평가적인 요소보다는 기술적인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각 저널들마다 그림작가와 그림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그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몇몇 저널에서는 서평자들이 서지학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글작가보다는 그림작가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적인 언급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그림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여전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Dodson(1983)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625편의 서평을 샘플로 한 연구에서 아동 도서 서평의 내용에 있어서의 서술식 혹은 평가식 측면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몇몇 서평들은 서술식과 평가식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서평들은 전형적으로 줄거리, 구성과 등장인물,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녀는 그림책의 문학적, 예술적 질에 대한 토론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서평은 그림책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서평자에 의해 진지하고 적당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안재현(2003)은 국내 신문의 북섹션에 실린 서평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순 기술과 해설이 있을 뿐, 비평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실상을 드러내었다. 김선남(2003) 역시 한국 신문 서평기사는 주로 기술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도서의 단순 소개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비전문적인 서평 필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서평들이 도서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도서의 문학적인 질과 예술적인 질에 대한 평가적인 언급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동도서의 서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서평전문지에 실린 아동도서 특히 그림책 서평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평지는 아동 도서 서평을 정기적으로 싣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출판계의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되는 <출판저널>, 정부관련기관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행되는 서평전문지 <서평문화>, 판매 대여기관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서평전문지 <열린어린이>를 선정하였다. <출판저널>에서는 어린이 서평을 정기적인 코너로 마련한 2003년 2월호부터 2004년 7월까지 실린 그림책서평 79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서평문화>의 1991년 32집에서 2004년 54집까지 아동 부분에 실린 아동서평 64편 중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서평 6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에서는 2002년 12월 창간호부터 2004년 7월호까지 서평코너에 실린 그림책 서평 74편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세 저널에서 추출한 그림책 서평 159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 자료분석 방법

대상이 된 서평의 내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저널간 서평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항목으로는 그림책 서평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잡지에 실린 아동도서 서평 중 그림책의 서평이 실린 비율, 장르의 분포, 국내도서와 번역도서의 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평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지학적 요소, 문학적 요소, 예술적 요소 등이 포함된 비율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문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 문단에 여러 요소가 중복하여 나타났을 경우에는 중복평정하였다. 아동문학 전공 대학원생 2인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실시한 결과 80.6% 일치율을 보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그림책 서평의 현황에 대하여

#### 1) 아동도서 서평 중 그림책 서평이 차지하는 비율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저널에 실린 아동도서의 서평에서 그림책의 서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그림책 서평이 차지하는 비율

서 평 지	아동도서(권)	그림책(권)	비율(%)
출판 저널	129	79	61.2
열린어린이	119	74	62.2
서평 문화	64	6	9.4
전 체	312	159	51.0

일정하게 ‘어린이 책꽂이’라는 어린이 도서 코너에 일정한 지면을 할당해 소개를 하고 있는 <출판 저널>에서는 아동 도서 129권 중 그림책은 79권으로 61.2%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도 어린이책 종합 서평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수많은 책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중 서평코너에 실린 119권의 서평 중 그림책은 74권으로 62.2%를 차지하였다. <서평문화>는 정통있고 신뢰성 높은 서평전문지라고 인정받고 있는 서평전문지 저널이다. 그러나 <서평문화>가 1991년 창간한 이래 아동 코너를 통해 2004년 54집까지 소개된 아동도서는 64권에 이르렀고, 여기에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인 6권에 그쳤다.

#### 2) 서평에 실린 그림책의 장르

각 저널에서 서평 대상이 되었던 그림책의 장르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출판저널>에서 소개된 그림책 서평에서 픽션이 74.68%로 년픽션에 비해 단연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열린어린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픽션이 전체 71.62%로 년픽션의 25.32%에 비하면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서평문화>는 전체 6권 중 5권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리는 년픽션으로서 다른 저널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

<표 2> 그림책 장르 분포

서 평 지	픽션(%)	년픽션(%)	전체(%)
출판 저널	59(74.68)	20(25.32)	79(100)
열린어린이	53(71.62)	21(25.32)	74(100)
서평 문화	1(16.67)	5(83.33)	6(100)
전 체	113(71.07)	46(28.93)	159(100)

내었다. 대상이 된 세 저널에 실린 159권의 그림책 중 픽션이 71.07%로 년픽션에 비해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국내도서와 번역도서의 비율

연구대상이 된 서평들의 국내서와 번역서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출판저널>은 국내도서와 번역도서의 비율이 51.90%와 48.10%로 엇비슷한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열린 어린이>의 경우에는

<표 3> 그림책의 국내도서와 번역도서의 비율  
권(%)

서 평 지	국내도서(%)	번역도서(%)	전체(%)
출판저널	41(51.90)	38(48.10)	79(100)
열린어린이	24(32.43)	50(67.57)	74(100)
서평문화	5(83.33)	1(16.67)	6(100)
전체	70(44.03)	89(55.97)	159(100)

번역도서가 67.57%로 국내 창작물에 비해 많은 비율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평문화>는 국내도서의 소개율이 83.33%로 나타나, 번역도서보다는 국내도서의 소개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그림책 서평의 내용 분석

1) 서지학적 정보

서평과 함께 실린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서지학적 정보가 실리는 정도는 <표 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책 제목, 번역자, 저자, 출판사 이름은 대상이 된 모든 서평지에서 100%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페이지수의 경우 <출판저널>과 <서평문화>에서 기재하고 있었으며, 도서의 출판연월일의 경우에는 <서평문화>에서만 기재하고 나머지 서평지에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판형, 원본출판일 등을 기

<표4> 서지학적 정보

서 평 지	저자	번역자	제목	출판사	출판일	가격	ISBN	페이지수	판형	원본출판일
출판저널	○	○	○	○	×	○	×	○	×	×
열린어린이	○	○	○	○	×	×	×	×	×	×
서평문화	○	○	○	○	○	○	×	○	×	×

<표 5> 문학적 요소  
권(%)

서 평 지	내용	배경	사건	인물	주제	언어	전체
출판저널	67(84.81)	2(2.53)	1(1.27)	27(34.18)	28(35.44)	8(10.13)	79(100)
열린어린이	47(63.51)	3(4.05)	2(2.70)	14(18.91)	20(27.03)	15(20.27)	74(100)
서평문화	2(33.33)	0(0.0)	0(0.0)	2(33.33)	2(33.33)	3(50.00)	6(100)
전체	116(72.96)	5(3.14)	3(1.89)	43(27.04)	50(31.45)	26(16.35)	159(100)



재하는 서평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문학적 요소

각 서평지마다 서평의 내용에서 문학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평지에서 72.96%가 간단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서평을 기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1.45%가 이야기가 전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7.04%가 묘사된 인물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16.35%는 도서에게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배경이나 사건 전개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학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을 문단단위로 분석한 결과, <출판 저널>은 문학적인 요소에 대하여 평가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기술적 진술방식을 사용하는 문단은 평균 1.24문단이었으나, 평가적 진술방식을 사용한 문단은 평균적으로 0.35문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에서는 평균 1.73문단이 기술적인 진술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평균 0.51문단이 평가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서평문화>에서는 평균 0.5문단이 기술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였고, 평균 2문단이 평가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서평문화>가 다른 서평지보다 서평자의 비평적인 시각에서 문학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한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책은 우리가 겪는 생생한 삶의 과정 자체가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책에서 사용한 언어에

대하여 언급한 평가적 예문으로는 “...마치 옆에서 말하고 있는 듯한 입말체, 대화체입니다. 높임말보다 반말을 사용하여 표현은 좀 더 쉬워지고 간결해졌습니다. ... (중략) 쉬운 입말체와 다양한 구성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입문서로서 적합한 요소입니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배경에 대한 평가적인 진술을 한 예문을 살펴보면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또 대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의 관점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만남이 이뤄내는 세계로 표현하여 보여준다.”를 들 수 있다. 인물에 대한 평가적인 진술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루카스의 마지막 행동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새로운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와 같다.

## 3) 예술적 요소

<표 6>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서평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림에 관한 예술적인 요소는 글에 해당되는 문학적인 요소에 비하면 저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저널>와 <서평문화>에서는 세세하게 요소로 짚어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림의 분위기로 간단한 언급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열린어린이>에서는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언급이 51.3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료에 대한 언급이 32.43%, 색에 대한 언급이 27.03%, 그림의 배치 및 구도에 대한 언급이 21.62%로 그림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림에 관한 서평자의 의견을 문단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출판저널>의 경우 기술적인 진술방식이 평균, 0.35문단이, 평가적인 진술방식은 평균 0.06문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평자의 비평적 시각보다는 단순 기술하는

〈표 6〉 예술적 요소

권(%)

서 평 지	매 체	색	선	스타일	전반적인 그림 배치(구도)	전 체	
출판 저널	6(7.59)	1(1.27)	0(0.00)	3(3.79)	12(15.19)	0(0.00)	79(100)
열린어린이	24(32.43)	20(27.03)	11(14.86)	2(2.70)	38(51.35)	16(21.62)	74(100)
서평 문화	2(33.33)	0(0.00)	1(16.67)	2(33.33)	4(66.67)	0(0.00)	6(100)
전 체	32(20.13)	21(13.21)	12(7.55)	7(4.40)	54(33.96)	16(10.06)	159(100)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진술방식이 평균 0.53문단, 평가적인 진술방식이 평균 0.76 문단을 사용하고 있어서 단순기술보다는 서평자의 비평적인 의견을 다소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서평자의 구성이 분야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분야 전문가의 글에서는 평가적인 진술이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평가적인 진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평문화>에서는 기술적인 진술방식이 평균 0.5문단, 평가적인 진술방식이 평균 1문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적 요소의 진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서평문화>에서는 정보의 단순 진술이 아니라 서평자의 비평적인 관점이 예술적인 요소에서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평자의 관점을 알 수 있는 비평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매체에 대한 언급으로 “흑백 연필화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빠비의 내면을 표현합니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색에 대한 언급으로는 “연겨자색에서부터 갈색톤까지의 수채화를 배경으로... 가을의 정취를 물감과 색연필로 표현한 그림은 글과 잘 어울리며, 섬세하고 아름답다.”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넓은 여백을 둔 공간구성은 심상의 공간으로 연출된 듯 싶다.”, “사각형이나 원형의 창을 뚫어 서로 공유하는 이미지가 연출하는 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내고, 이미지 내용과 형식도 화려하고 현란하

며 무게감이 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그림만 넣어 글 내용의 전후사정을 확장시켜 표현하였고, 글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아지를 그려 이야기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 등이 있다.

#### 4) 서평지에서 서평자에 대한 정보

<출판저널>의 경우 내부 담당 기자가 전체 서평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평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열린 어린이>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혼용하여 서평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서평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간단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평문화>는 대부분 대학 교수로서 분야 전문가를 서평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위만 기재되어 있어서 서평자를 알 수 있는 정보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외형에 대한 진술

본 연구에서는 서평의 대상이 되는 그림책의 외형에 대하여 서평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책의 외형이란 책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판형, 글자 모양, 종이의 질, 판업과 같은 장치 등을 말한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출판저널>은 3.80%, <열린어린이>는 12.16%, <서평문화>는 33.33%로 나타나 현 서평에서 서평자들의 외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형에 대한 진술 권(%)

서평지	출판저널	열린어린이	서평문화	전 체
외 형	3( 3.80)	9( 12.16)	2( 33.33)	14( 8.81)
전 체	79(100.00)	74(100.00)	6(100.00)	159(100.00)

서평에 제시된 그림책의 외형에 대한 진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의 긴 판형으로 인해, 오랜 여행기간동안 누들이 느꼈을 고달픔과 아프리카 사막의 막막함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듯하다.”, “안으로 접혀 들어간 화면을 펼치면 두배 길이의 화면으로 늘어나는 것, 대부분 가로로 길게 구성되던 화면이 절정 부분에서는 세로로 전화된 것...”, “앞으로 읽어도 뒤집어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앞뒤 그림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특별한 점입니다.”, “...종이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 (중략) 목이 긴 동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듯 긴 세로종이 위에 그려져 있다. ... (중략) 쓰인 글자 크기와 배열도 종이 크기만큼 일정하지 않다. ... (중략) 편집의 다양성은 주의집중 시간이 적은 유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마지막 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견인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아동이 태어나서 최소한 10년간 접하게 되는 문학작품은 그림책이다. 그래서 10세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들은 그림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의 영향으로 그림책 출판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매년 엄청난 양의 그림책이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출판되는 그림책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저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 저널에 실리고 있는 그림책 서평은 독자들을 위해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싣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저널 <출판저널>, <열린어린이>, <서평문화>에 실린 아동도서의 분포 현황을 알아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저널에는 총 312권의 아동도서의 서평이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그림책은 159권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상호(2001)와 김선남(2003)은 국내 서평전문지와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도서에 대한 서평이 가장 적다는 결론을 발표한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평의 편수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서평의 대상이 된 그림책의 장르는 년 픽션보다 픽션이 좀더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내(2003)의 어린이 권장도서의 장르 분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 픽션은 218권으로 72.1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년픽션은 84권으로 27.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의 즐거움을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도 얻는다. 그래서 어린시절부터 어느 한 장르에 편중되어 읽히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저널에서 픽션이라는 장르에 편중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서평의 대상이 된 그림책의 국적은 국내 도서가 전체의 44.03%, 번역도서가 55.97%로 나타났다. 번역도서의 출판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점에서 번역도서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칫 국내 도서에 대한 관심이 번역도서에 밀려날 수 있는 현실에서 각 저널에서 균형있게 국내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서평의 내용에서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안목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서평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지학적 정보

서평의 내용과 함께 실린 서지학적 정보로서 책제목, 저자 이름, 번역자 이름, 출판사 이름은 모든 저널에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구입에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나 페이지수, 초판 출판일 등은 저널마다 다르게 실리고 있었다. 또한 이외에도 참고사항으로 작용하는 ISBN, 판형, 도서수준, 원본 출판일, 장르 등은 어느 저널에서도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Bishop과 Van Orden(1998)의 연구가 보여준, 미국 내 저널 6가지에 실린 서평에서는 구입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대조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서들과 부모, 교사들이 도서를 선정하고 분류, 비교하는데 안내 역할을 한다. 김규연(1999)의 연구에서도 많은 성인들이 도서를 구입시 내용과 더불어 가격 등을 고려한다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각 서평지에서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좀더 자세히 제공하여야 필요성을 보여준다.

### 2. 문학적 요소 진술방식

각 서평지마다 서평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

의 내용을 언급한 사례가 72.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제, 인물, 언어에 대한 내용이였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나 사건 전개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평의 내용이 도서의 즐거리를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Bishop & Van Orden, 1998; Veeder, 1992; 김선남, 2003; 안재현, 2003)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Craver(1984)가 서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서평자들은 내용을 고려할 때 문학적 요소를 1순위로 꼽는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서평자들은 여러 요소들에 대한 평을 기술하는데 기술적인 진술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ishop과 Van Orden(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많은 저널에서 도서의 내용을 단순히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적인 진술방식은 서평자의 관점을 알 수 있고, 독자가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서평은 기술적인 진술방식과 평가적인 진술방식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한다.

### 3. 예술적인 요소 진술방식

서평의 내용에서 예술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은 문학적 요소에 대한 언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료, 선, 색, 구도 등 그림 구성요소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평을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평이 33.9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raver(1984)의 서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그들은 그림책의 시각적인 특징에 주의를 적게 기울인다는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단지 미적으로 예쁘게 하여 시각적으로 매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은 글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림 작가의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은자, 변윤희, 강은진, 심향분(2004)은 그림책에서 글은 그림 없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림이 없다면 이야기의 의미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림책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림책에서 그림이 갖는 의미와 예술성에 대해 이야기하여 왔으나, 여전히 많은 독자들은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서평지는 독자들의 그림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4. 서평자의 정보

많은 학자들(Craver, 1984; Croft, 1978; Heppermann, 2002; Sutherland, 1975) 이 서평자의 역할은 서평의 질을 가름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서평의 내용에서는 서평자의 이름만 있거나 현재의 직위만 있을 뿐 자세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평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은 서평의 내용에 대한 신뢰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그래서 서평자의 기재는 서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직분이 대부분 내부 기자, 교수, 미술 전문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도서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평자는 사회현상에 귀기울 수 있어야 하며, 책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하며, 독자인 아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평자는 아동들의 독서 능력과 발달

상태를 잘 이해하고 해당분야를 면밀히 연구하는 어린이 문학 전문가, 교사, 사서, 학부모 등의 참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5. 도서의 외형에 관한 기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서평 중 그림책의 외형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8.81%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책은 다른 어떤 도서들보다 다양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실제 도서 구입에 그림책의 외형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김시내(2003)도 어린이 권장도서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가로의 길이는 110mm~310mm까지, 세로의 길이는 128mm~372mm까지 일정한 규격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상호(2001)는 문헌은 정신적인 자산일 뿐 아니라 형식미를 지닌 물리적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헌의 물리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그림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책의 체제, 모양과 크기, 즉 문헌의 형태는 문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림책과 같이 각별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 경우에 서평자는 외형에 대한 형태 비평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기간행물에서 다루고 있는 그림책의 서평에 실린 내용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정된 저널에 실린 그림책 서평은 그 편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은 그림책에 대한 서평을 정기적으로 실고 있는 간행물이 적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사이트에서 아동 도서에 대한 서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렇게 인쇄물이 아닌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서평들의 신뢰성, 적절성, 서평의 정도뿐 아니라 간행물의 서평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터넷에 실리는 서평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간 위주로 가볍게 소개하고 있는 신문에 실린 서평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하여 그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연구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평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 참 고 문 헌

- 김규연(1999). *한국 아동도서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호(2001). 문헌의 형태에 관한 비평기사 분석. *서지학 연구*, 22, 97-122. 서지학회.
- \_\_\_\_\_(2003). *문헌 비평론*. 대구 : 태일사.
- 김선남(2003). 한국신문 서평에 관한 계량적 연구. *서지학 연구*, 25, 241-261. 서지학회.
- 김수영(1995). *어린이 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시내(2003).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과 특성 분석; 유아 도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한 출판문화협회(2003). *한국출판연감*.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 민경록(1997). *서평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공철 등편(1986).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 협회.
- 안재현(2003). *국내신문 북색선에 대한 특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동(1993). 서평작업과 윤리의식. *서평문화, 제11집*, p.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천효(1996). *현대 문헌비평의 해부*. 서울 : 영미.
- 한국도서관협회(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현은자 · 변윤희 · 강은진 · 심향분(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 마루벌.
- Abrams, M. H.(1981).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문학비평 용어사전*. 권택영 편역. 새문사.
- Bishop, K., & Van Orden, P.(1998). Reviewing children's book : a content analysis. *Library Quarterly*. 68 (2), 145-182.
- Bishop, K., & Wilson, Margo(1999). Criteria for Reviewing Children's Book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3(1), 3-13.
- Craver, K. W.(1984). Book Reviewers : An Empirical Portrait.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2(5), 383-409.
- Croft, C. B.(1978). Regarding Reviewing : An Interview with Zena Sutherland. *Language Arts*. 55(5), 587-90.
- Heppermann, C.(2002). Looking like a wonton and talking like a fortune cookie. *The Horn Book Magazine*, 78(2), 153-157.
- Horning, K. T.(1997). *From cover to cover; Evaluating and reviewing children's books*. Harper Trophy.
- Prytherch, R.(1995). *Harrod's Librarian's Glossary*.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Gower
- Sutherland, Z. B.(1975). Book Reviews : Before and After. *School Library Journal*. 21(6), 22-3.
- Unsworth, L., & Wheeler, J.(2002). Re-Valuing the Role of Images in Reviewing Picture Books. *Reading : Literacy and Language*. 36(2), 68-74.
- Veeder, M. H.(1992). Journalistic reviewing and children's books : a personal and professional perspective. *The Lion and The Unicorn*, 16, 83-89.
- Witucke, A. V.(1980). A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Book Review Media. *ED195264*.
- Wyatt, R. O., & Badger, D. P.(1984). How Reviews Affect Film Interest and Evaluation. *ED245250*.
- Wyatt, R. O., & Badger, D. P.(1984). How Reviews Affect Interest in and Evaluation of Time. *Journalism Quarterly*. 61(4), 874-78.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2일 채택